

문서번호 : 18-09-사무-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9. 30.(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 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일(월)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
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